



# 번개의 질주 '9초 69'

## 볼트, 육상 100m 세계新 우승

‘번개볼트’ 우사인 볼트(22·자메이카)가 전 세계 60억 인구의 관심 속에 치러진 베이징올림픽 남자 육상 100m에서 세계신기록을 세우고 금메달을 따면서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로 우뚝 섰다.

볼트는 지난 16일 베이징 ‘궈자타이위장’(國家體育場) 트랙에서 벌어진 인간탄환 대결에서 9초68을 찍어 9초95에 그친 종전 세계기록 보유자 아사파 파월(26·자메이카)을 여유 있게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그는 결승선을 20m 앞두고 완승을 확신한 듯 양 팔을 벌리고 포효하며 끝냈다.

볼트는 지난 5월4일 자메이카 킹스턴에서 열린

국제초청대회 남자 100m 결승에서 9초76을 찍고 예상처럼 등장했다. 200m가 주종목으로 100m에서는 10초03이 최고기록이던 그는 세 번째 100m 도전 만에 9초76을 찍어 육상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이어 한 달이 채 안된 6월1일 국제육상경기연맹(IAAF) 뉴욕 그랑프리대회에서 파월이 보유 중이던 세계기록(당시 9초74)을 8개월 만에 새로 쓰면서 베이징올림픽 금메달 0순위 후보로 급부상했다. 100m 다섯 번째 도전 만에 이룬 위업이었다.

볼트는 당시 지난해 오사카 세계선수권대회 100m, 200m, 400m 계주에서 3관왕에 오른 게이와 레이

스를 치렀고 출발부터 압도적인 기량을 뽐내면서 게이를 멀찌감치 따돌리고 우승했다.

볼트는 작년 세계선수권대회 200m와 400m 계주에서 은메달을 딴 유망주로 200m가 주종목이다. 2004년 200m에서 19초93으로 주니어 선수로는 최초로 20초 벽을 깨면서 세계주니어신기록을 작성했고 IAAF로부터 ‘200m 분야 기대주’로 일찍부터 공인된 그는 지난해에는 19.75로 개인 최고 기록을 수립하며 자국 기록을 36년 만에 갈아 치웠다.

그는 100m정상에 오르면서 200m까지 2관왕을 바라보게 됐다. 200m에서는 게이가 출전하지 않아 그를 막을 자는 없다.

연도	기록	선수	속도
1927.8	10'6"	도널드 리핀코프(미국)	34 km/h
1936.6.30	10'2"	제시 오벤즈(미국)	35.3 km/h
1968.10.14	9'9"	질 하인즈(미국)	36.2 km/h
1991.6.25	9'8"	칼 루이스(미국)	36.5 km/h
2002.9.24	9'7"	틸 롱고예라(미국)	36.8 km/h
2006.6.15	9'7"	아사파 파월(자메이카)	36.85 km/h
2006.5.12	9'7"	저스틴 게이틀런(미국)	36.85 km/h
2006.6.11	9'7"	아사파 파월(자메이카)	36.85 km/h
2006.6.18	9'7"	아사파 파월(자메이카)	36.85 km/h
2007.9.15	9'7"	아사파 파월(자메이카)	36.96 km/h
2008.6.1	9'6"	우사인 볼트(자메이카)	37.04 km/h
2008.6.16	9'6"	우사인 볼트(자메이카)	37.15 km/h



# 한국 4연승, 메달 보인다



## 일에 역전승 이어 中 승부치기로 꺾어



한국 야구대표팀이 중국을 꺾고 4연승 행진을 이어가며 4강 진출을 사실상 확정지었다. 한국은 17일 베이징 우커슈구장에서 제1회 2008 베이징올림픽 야구 풀리그 2차전 중국과의 연장 11회말 승부치기에서 이승엽의 끝내기 안타로 1-0으로 이겼다.

한국은 ‘야구 중추국 미국’을 시작으로 승리행진을 펼치며 4승무패로 쿠바와 동틀로 선두로 나섰다.

18일부터 20일까지 대만과 쿠바, 네덜란드를 만나는 한국은 남은 경기 가운데 한 경기만 잡아도 준결승 진출이 확정된다.

사흘 전 경기 도중 내리 비로 인해 예비일인 이날로 연기된 경기는 6회말 한국 공격 1사 주자 없는 이종욱 타선부터 시작됐으나 10회까지 0-0의 행진이 계속됐다.

11회 길고 길었던 ‘0’의 승부에 종지부를 찍었다.

톱타자인 이종욱과 2번 이용규를 2루와 1루에 두고 이닝을 시작한 한국은 정근우의 희생번트에 나온 상대 투수 무지엔강의 판단 실수로 무사 만루의 기회를 잡았고, 이승엽의 좌전안타로 승부를 마무리 지었다.

한편 한국은 지난 16일 베이징 우커슈구장에서 열린 2008 베이징올림픽 야구 예선 풀리그 일본과 4차전에서 2-2로 맞선 9회 초 대거 3점을 뽑아내며 5-3 승리를 거뒀다.

연합뉴스

## “한국 금 10개 좀 더 지켜봐달라”

### 이연택 “비관할 시점 아니다”

○이연택 대한올림픽위원회(KOC) 위원장이 2008 베이징올림픽에서 한국의 메달 목표에 대해 “아직 비관할 시점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천명.

이연택 위원장은 17일 낮 중국 베이징 시내 프라임호텔 코리아하우스에서 진행된 장미란(25·고양시청)의 기자회견에 참석한 뒤 ‘메달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느냐’란 취지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

이 위원장은 “아직까지는 비관도 큰 낙관도 하기에는 이르다.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 “지금도 일단 크게 비관할 시점은 아니다. 그래도 이 시점에서는 그런대로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 “호시노 발언이 한국전 패인”

○일본 스포츠전문지 데일리스포츠는 2008 베이징올림픽 야구 예선 풀리그 한일전에서 일본이 3-5로 진 데 대해 “호시노 센이치 감독의 발언이 한국 대표팀을 자괴했

다”고 지적. 호시노 감독이 지난해 12월 올림픽 예선에서 일어난 이른바 ‘위장도어’ 사건을 두고 경기 직전까지 끈질기게 물고 늘어진 게 결과적으로 한국 선수들의 반발을 불러왔다고 본 것.

호시노는 지난 12일 감독회의가 끝난 뒤 한국기자의 질문에 “한국 선수 중 특별히 신경쓰이는 선수는 없지만 오더나 바꾸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발언한 바 있으며 쿠바와 한국에 지며 2패(2승)를 떠안은 일본은 어느새 예선 통과를 걱정하는 처지.

### 선수촌 등에 콘돔 40만개 배포

○베이징시 보건당국이 2008 올림픽 선수촌과 시내 호텔에 40만개가 넘는 ‘공짜 콘돔’과 25만개의 에이즈 방지 홍보책자를 배포했다고 중국의 관영 영자지 차이냐데일리 가 16일 보도.

시 보건당국은 전날 ‘올림픽과 에이즈 예방’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갖고 이런 내용을 포함, 시 차원에서 진행중인 에이즈 방지 캠페인을 소개했으며 무료 콘돔 40만개 가운데 10만개는 선수촌에 비치됐다고 설명했다.

## 유남규 “흠뻑세 해도 너무해”

○한국 탁구 남자 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유남규(40) 코치는 지난 16일 베이징대 체육관에서 중국과 남자 단체전 준결승 경기에서 0-3으로 패한 뒤 중국의 도를 넘어선 텃세 응원에 분통.

이날 중국 응원단은 6천200여석을 가득 메운 상황에서 중간 중간에 갑자기 장내 아나운서가 등장해 계속 ‘짜~요, 짜~요(加油·힘내라)’를 외쳐대고 벤치를 지키던 중국 코치진까지 스탠드를 향해 손을 저으며 응원을 유도해 한국 선수들이 위축.

## 홍은아, 女축구 4강전 주심

○국제축구연맹(FIFA)은 17일 유일한 한국인 축구 심판인 홍은아(28)씨를 다음 날(18일) 상하이 스타디움에서 열린 브라질-독일 준결승 주심으로 배정했다고 발표.

남자축구 주·부심 48명과 여자축구 주심 12명, 부심 24명을 통틀어 나이가 가장 어린 홍 심판이 준결승 경기를 배정받은 건 이례적으로 홍 심판은 앞서 홈 개막전이었던 중국-스웨덴 전과 브라질-나이지리아전에서 휘슬을 불었고 칼날 같은 판정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17일 오후 베이징 우커슈 야구장에서 열린 한국 대 중국 경기에서 6회말 1사 선투타자 이종욱이 1루에서 세이프되고 있다. 지난 14일 우천으로 인해 ‘서스펜디드 게임’이 선언된 중국전 경기는 이날 6회말 1사 이종욱 타석부터 다시 열렸다. 연합뉴스

## ‘너를 넘어야 내가 금’ 영원한 라이벌 브라질-아르헨 결승 길목 ‘외나무 다리 대결’



우승 후보로 꼽히는 ‘삼바군단’ 브라질과 남미의 강호 아르헨티나가 올림픽 우승 길목에서 외나무 다리 대결을 펼치게 됐다. 또 이탈리아를 꺾는 이번을 일으킨 베키에리는 코트디부아르를 2-0으로 누른 나이지리아와 4강 대결을 벌인다. 브라질은 16일 중국 선양 올림픽스타디움에서 열린 2008 베이징올림픽 남자축구 8강전에서 하파엘 소비스(레알 베티스)와 마르셀로(레알 마드리드)의 연속골로 카메룬을 2-0으로 꺾었다. 이로써 사상 첫 올림픽 우승을 노리는 브라질은 4강에 선착, 네덜란드를 연장 접전 끝에 2-1로 따돌린 아르헨티나와 결승행 티켓을 다툰다.

월드컵 역대 최다인 5회 우승에 빛나는 브라질과 2004년 아테네 대회 챔피언 아르헨티나가 올림픽 금메달을 놓고 사실상 결승전을 치르게 된 것이다. 지난 6월까지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명문 FC 바르셀로나에서 한술밥을 먹었던 브라질 대표팀의 호나우지뉴(AC밀란)와 아르헨티나의 간판 공격수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의 격돌도 불가피하게 됐다.

브라질은 카메룬전에 호나우지뉴 등 주전을 총출동시키기도 전, 후반 90분을 득점 없이 비겼지만 연장 전반 6분 소비스가 감각적인 슈팅으로 카메룬 골문을 열었다.

이어 4분 뒤 마르셀로가 추가골을 넣어 승부를 갈랐다. 아르헨티노 연장 협투를 벌인 네덜란드를 2-1로 일축했다. 전반 14분 메시의 선제골을 앞서간 아르헨티노 후반 동점골을 내놨지만 연장 전반 메시가 오른쪽에서 찰려준 공을

안젤 디마리아가 달려들며 왼발 슛을 날려 결승골을 성공시켰다. 반면 이탈리아는 주세페 로시(바이레알)가 두 골을 넣는 활약에도 끝내 벨기에에 2-3으로 역전패. 1936년 베를린 대회 이후 72년 만의 정상 복귀 꿈을 접었다.

### 오늘의 올림픽

- ◇18일(한국시각)
- ▲육상 = 세단뛰기 등(11시·궈자타이위장)
- ▲야구 = 한국-대만(12시30분·우커슈 야구장)
- ▲체조 = 남자 링 등(19시·국가실내체육관)
- ▲핸드볼 = 남자부 한국-러시아(15시·올림픽스포츠센터 체육관)
- ▲하키 = 여자부 한국-남아공(11시30분·올림픽그린하키경기장)
- ▲탁구 = 여자 단식 등(10시·베이징대 체육관)